

CONTENTS

KOSCA LETTER Vol.4

코스카레터 제4호



06



10

PART 1

1. 권두사04
- 정경진 _ 행정부시장
 - 서용교 _ 국회의원



12

PART 2

2. 협회소식06
3. 회원소식14
4. SPECIAL01 - 소통하는 문화공간16
5. SPECIAL02 - 건설기술교육원 훈련생 모집안내19
6.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20
7. 신기술 소개 - 한국라이텍(주)/한국라이텍개발(주)30
8. SPECIAL03 - 건강지킴이32



14

PART 3

9. 전문건설인의 삶34
- 간삼인 5호 임철규 _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 간삼인 6호 최문학 _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10. 건설산업정보 - Part 138
11. SPECIAL04 - 쉬어가는 유머42
12. 건설산업정보 - Part 244
13. SPECIAL05 - 도시재생, 재정비사업 모범사례54
14.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56
15. 회원사 질의·응답58
16. 특별기고60
- 이정재 교수 _ 친환경도시 부산을 위하여
17. SPECIAL06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62
18. SPECIAL07 - 그것이 알고싶다64

PART 4

19. 회원사 현황66
20. 신규 회원가입업체 소개72
21.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73
22.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74
23. 건설용어 바로쓰기76
24. SPECIAL08 - 업무단신+2/4분기 주요일정77
25. 회원사 참여 마당78
26. 협회 제휴카드 소개79

2015년 Vol. 04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message

01 권두사 MESSAGE

“ 부산전문건설 소식지 '코스카레터'가 지난해 6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700여 회원 사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정 경 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회원의 권익 증진과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코스카레터'가 벌써 네 번째 발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하고, 전문건설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희망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엔저 공세, 유로존 리스크, 산유국 위기 등으로 수출 여건이 만만치 않아 기업실적 부진과 향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연초 정부에서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도의 개편, 계약단가,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가격들을 반영한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업 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특히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기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스카레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든든한 힘이 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체들의 활로를 여는 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 권두사 MESSAGE

“ 코스카레터 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0호, 400호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

서 용 교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안녕하십니까? 서용교 의원입니다.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소식지 '코스카레터' 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1,700여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부산시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을 맡은 뒤 첫 번째로 연 정책간담회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건설업계는 SOC투자 위축으로 공공시장이 대폭 축소된 데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시회는 부산전문건설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업계의 결속을 다지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일거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산시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회원사의 권익과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서기 위해 '코스카레터'를 선했고, 이번이 4호째 발간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코스카레터'는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사를 서로 이어주고 전문건설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소통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현안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은 물론, 전문건설업 경쟁력 향상 방안과 영세 전문건설업체 육성방안까지 '코스카레터'를 통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사와 전문건설인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간절함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흐트러짐 없이 똘똘 뭉친다면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코스카레터' 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0호, 400호,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2015년 신년인사회

부산시회는 1월 9일(11:3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100여명의 대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회원사와 소속 임·직원의 가정에 구름과 같이 좋은 일이 모여드는 천상운집에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회원사가 보다 많은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협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참석자와 함께 신년 떡 커팅을 하였다.

또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대신하여 김병철 회장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과 건설기능인상」을 수상한 회원사 임·직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부산시회 저문번호사, 저문노무사, 저문회계사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에서는 1월 9일과 3월 15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시회 포상심사 기준 및 2015 건설안전위원회 등 제행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회장단 및 감사 연석 간담회

부산시회에서는 1월 14일(12:00 / 도림) 회장단 및 감사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주유현안 및 2015회계연도 주요일정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월 26일(16:0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및 회원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암 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암 세출예산(안), 제30회 정기총회 개최일자 및 부의사항 등을 의결·결정하였다. 또한, 협회 위상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및 활동 추진 계획과 업종별 분과회의의 지원 계획 등 협회 주요 당면현안을 협의하였다.



협회 소식

제30회 정기총회

부산시회는 2월 2일(11:00 /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 5층 그랜드볼룸) 중앙회 표 재석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심상조 수석 부회장과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최영수 소장 등 내빈과 부산시회 대표회원 1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병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사회, 미래를 위한 진정한 선진협회로 거듭나고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로 열정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시회가 회원 권익증진과 업역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우수시회로 선정되어 중앙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부인사와 회원사, 사무처 직원에 대한 표상도 함께 실시했다.

(※ 수상자 명단은 p.15 회원동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OSCA 중앙회 심상조 수석부회장 격려사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축사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축사



외부인사 표상



회원사 표상

2014년 활동상 빛났다. <부산시회 우수시회>로 선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최다발주, 회원사 권익보호 공로



건설분야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 실시

부산시회는 3월 10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원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률 및 노무분야에 대한 1:1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안 등 민·형사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여천모 자문노무사가 노동단체의 불법파업,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있었다.



지붕판공·건축물조립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3월 20일(11:3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지붕판공·건축물조립공사업 분과소속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붕판공·건축물조립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현황 및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등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전문건설업 활성화 방안 및 지붕판공·건축물조립공사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5회계연도 상반기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26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2015년도 상반기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의 역할과 전반적인 건설산업제도 소개,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을 설명하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협회 소식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나성린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병철)는 1월 22일 광주시회 송성홍 회장, 경남도회 심상범 회장, 전남도회 정종오 회장과 함께 나성린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분리발주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윤태 구청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1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윤태 구청장 및 건설관계관,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도구의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협회에서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 영도구청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 3억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 영도구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원 등을 건의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2월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 및 건설관계관,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병철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거리 창출과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수영구 관내 대형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박현욱 구청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31일 권준안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2014년도 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가 부산이 전국1위를 달성한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에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60% 이상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이에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살아야 부산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부산광역시 시책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에 더욱 노력하고, 부산지역 대형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소식

❖ 사회공헌활동

KOSCA RMC 임원단 해외(캄보디아) 워크숍

KOSCA RMC(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에서는 부산 유일의 구호단체인 한끼의식사기금과 2014년 5월 27일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과 지역사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RMC임원단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동안 한끼의식사기금 캄보디아지부 및 놀이터 제작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한끼의식사기금 캄보디아지부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 자활 지원사업, 돼지분양 및 양돈교육 지원사업, 시골노후 초등학교 수리, 기자재 지원 및 놀이터 제작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사업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우리 RMC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시골 오지 초등학교 놀이터 제작사업 현장 및 타국 돼지분양마을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교육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고 정부의 지원조차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전혀 없거나, 이미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된 시설이 대부분이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 기초체력이 약하여 각종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끼의식사기금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놀이터 제작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오지 초등학교는 방문하는 길부터 험난했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마려지지 않은 길을 몇 시간씩 차를 타야만 갈수 있고, 가는 길목 만난 구덩이와 돌덩이에 버스에서 내리기도 해야 했지만, 막상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해맑게 웃으며 반겨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더운 날씨에 장시간 버스에 앉아 있는게 힘들다고 생각했던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슬라옹 초등학교 및 스레우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작이 완료된 놀이터에서 티 없이 해맑은 아이들과 시소와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이터 준공이 마무리되고 있는 잔하어 초등학교 놀이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은 놀이터 준공식을 준비하며 우리 RMC위원회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함께 현수막과 풍선을 준비하는 깜짝이벤트를 열어주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간 벽시계 및 문구류 세트를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서로 간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보석같이 반짝이는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던 아이들과의 짧고도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며, 돼지분양마을을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옮겨야했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학교 밖 멀리까지 손 흔들며 배웅해주는 아이들. 마지막까지도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수요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터 제작방법 등을 추가로 의논한 뒤, 추후 재능기부 등을 통해 놀이터 제작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 제작현장 모니터링을 마무리한 후 우리는 타국 돼지분양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돼지분양사업은 오지마을에 에이즈환자와 취약계층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새끼 임태지, 수태지 한 마리씩 분양한 뒤 사육방법, 질병예방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여 문제없이 돼지들을 기르고, 그렇게 잘 자란 돼지를 팔아 가정의 수입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신뢰하며,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KOSCA RMC에서도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 보다는 "함께" 하며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서로 다짐하며 캄보디아 모니터링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돼지분양 두 마리의 비용은 원화가격 12만원으로, 6개월간 돼지를 키워 새끼돼지 또는 어미돼지를 판매할 경우 그 수입은 캄보디아 노무자 1달 급여인 150\$ (원화가격 17만원)의 8배 정도(130만~150만원)가 된다.

무엇보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KOSCA RMC 간사 김영혜

회원 소식



❖ 회원소식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3월 13일 1,700여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 황적봉'으로 부산 전문건설인 2015년 제1차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행은 전국 100대 명산 중 4번째로 손꼽히는 '덕유산'의 눈 산행으로 실시되었으며, 하얀 눈꽃이 장관을 이룬 설천봉, 황적봉에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회원동정

디에이치테크(주) 대표이사 황소용 '제5회 부산혁신기업인상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 및 '제42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안내

디에이치테크(주) 황소용 대표이사는 2월 26일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무차입경영, 지원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 정책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하는 등 기업경영혁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혁신기업인상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3월 18일 최근 무재해11배수 달성으로 산업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디에이치테크(주) ☎051-314-3321(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66번길 20)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겸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제2대 회장 취임 인사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대표이사는 4월 9일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부산울산 지역 내 1,100여 이노비즈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단체로서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지산특수토건(주) ☎ 051-463-9365 (부산 남구 수영로 60 지산빌딩 4층)

❖ KOSCA 부산시회 제30회 정기총회 수상 명단

건설시공과 기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여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청도건설(주) 장 현 희	 (주)동공건설 하 태 실	 산양건설(주) 정 진 gap	 (주)금원건설 정 명 군	 (주)조 봉 임 대 군
 (주)보문하우징 김 재 용	 (주)청산산업 강 성 구	 상화건설(주) 정 인 호	 (주)남경 엔지니어링 토건 이 규 화	 (주)솔식재 김 기 광

01 힐링영양 1관 <스물>



**기만 많은 놈 '치호'
생활력만 강한 놈 '동우'
공부만 잘하는 놈 '경재'**

'스물'은 인기만 많은 놈 치호(김우빈) 생활력만 강한 놈 동우(이준호), 공부만 잘하는 놈 경재(강하늘)까지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스무 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어설픈 삶을 그린 자체발광 코미디다. 고교 동창생 3인방이 20대가 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시종일관 유쾌하게 그린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이 가볍다고 그들의 고민까지 가벼운 건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해 소파에 멍하니 앉아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치호(김우빈), 뚜렷한 꿈이 있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삶을 택해야 하는 동우(이준호), 학벌도 좋고 대기업 입사라는 번듯한 꿈을 향해 달리지만 사랑 앞에 속먹인 경재(강하늘)는 성향도 고민도 다르지만 '친구'와 '스물'이라는 수식어 아래 뭉쳤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있다. 취업, 가족, 그리고 섹스다. '스물'은 20대의 고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유머 코드와 버무려 우회적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스물을 왜곡이나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며 나, 너, 그, 그녀, 그들의 스무 살을 웃음이라는 소스로 버무린다. 인생의 맛을 조금 맛본 뒤 인생을 다 안 것처럼 세상 모든 고민을 은유로 풀어내고 싶지만, 결국 아무것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네 청춘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2관 <'헬머니' 비하인드 스토리>

- 신한술 감독은 무려 세달에 걸쳐 캐스팅을 진행했다.
- 스태프들은 김수미가 진짜 화가 나신 건지 연기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전했다.
- 신한술 감독은 "촬영중 가슴 속 한을 담은 진심 어린 욕에 침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300명 모두 기립박수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 김수미는 "시나리오를 보니 감독이 욕의 맛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시나리오에 너무 약한 것들만 있어서 경험에서 우러난 진한 욕들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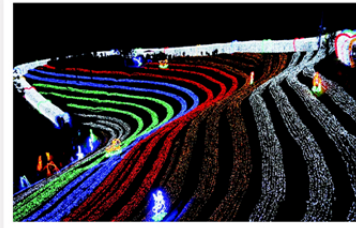


02 힐링캠프 해외여행 추천여행지



***모스크바 '붉은광장'**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광장**. 빨간색은 소련의 국기의 빨간색에 유래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옛 러시아어로 "아름답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이다. 붉은광장은 중국의 천안문광장처럼 가운데 서있으면 사방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들이 있다. 동서로는 길고, 남쪽에는 대통령 관저, 블라디미르 레닌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는 레닌 묘, 북쪽에는 국립 백화점 GUM, 서쪽에는 국립 역사 박물관, 동쪽에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 성 바실리 성당과 처형장이었던 로보노예 자리가 있다.모스크바의 중심이라고 할수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흐르는 '네바강'은 아름다운 강변으로 유명하다. '순양함 오로라 호'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 네바강은 '러일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기도 한 곳이다. 현재는 네바강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바이 '두바이몰'**

세계최대의 크기의 쇼핑몰인 두바이몰은 세계최대의 크기로 기념식북에 오른 **아쿠아리움과 분수쇼**를 즐길수 있다. 두바이 관 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주)거촌건설 대표이사
이상록

- 전곡서도민전 초대작가
- 사)한국서화협회 추천작가
- 전국 관설당 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서예부분 입선
- 대한민국 서화 예술 비엔날레 대회장상
- 국제 창작미술초대전 특별상
- 한국 추사서예가 협회 초대작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7가지 보시(布施)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탈털이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될 줄 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가지는 누구 나 다 있는 것이다."

- 첫째는 화안사(和顔施)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 둘째는 언시(言施)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 셋째는 심시(心施)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 넷째는 안시(眼施)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 다섯째는 신시(身施)
몸으로 배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 여섯째는 좌시(座施)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 일곱째는 찰시(察施)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습관이 붙으면 나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보시(布施)가 이토록 아름답고도 좋을 줄이야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인력 국비지원 무료 훈련생 모집안내

- 01 전국 최고의 건설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하여 부경대학교 신학협력단이 운영
- 02 2014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축시공 등 4개 직종에 6개월과정으로 60여명이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사업」에 타일과공의 1개직종 4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
- 03 최상의 교육서비스와 최고의 시설을 겸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및 100% 고용창출이 되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장실무중심의 맞춤형 건설기술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평생직업화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건설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2015 국비지원 무료 훈련생 모집 안내

▶ 기간 (3월 / 8월 개강)

과정명(직종코드)	정원	교육내용	자격증취득분야	취업분야
실내건축 (05-02-003)	45	• 실내건축 일반/설비/법규 • 도면작성 및 해독 • 건축목공 • 바닥/벽체/천장/방수공사 • 견적 및 적산	• 실내건축기능사 • 방수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건설회사 • 종합인테리어 업체 • 리모델링 업체
건축시공 (05-02-002)	45	• 건축시공일반/법규/안전관리 • 도면해독 및 시공도작성 • 조립식건축 • 방수/도배공사 • 견적 및 적산	• 방수기능사 • 도배기능사 • 건축시공기능사	• 건설회사 • 전문건설 업체 • 리모델링 업체
건축설비설계시공 (05-03-012)	45	• 건축배관/위생배관설비시공 • 난방설비시공(보일러 및 온수온돌) • 동관벤딩/동관용접/동관T형기/동관확관 • 전기용접/동관 및 강관용접 • 복합시공-X-L관/PVC관/강관조립	• 온수온돌 기능사 • 금속재정호기능사 • 보일러 직업체험 기능사 • 공조냉동 기계분야 기능사	• 건설회사 • 난방/가스설비 업체 • 시설관리직 • 철재장호시공업체
특수용접 (07-01-007)	45	• 특수용접(CO2/TIG-MIG/ 서브머지드용접) • 자동/수동 가스절단/플라즈마절단	• 특수용접기능사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 플랜트제조 업체 • 중장비제조 업체 • 조선업체

▶ 야간

과정명	정원	교육내용	교육일정	자격증취득분야	취업분야
건설플랜트 용접	20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구조설 계의 이해 • 플랜트 steel structure design의 이해 • 플랜트 배관설계 이해 사례 / CO2 용접	3월 / 6월 / 9월	• 용접 기능사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 플랜트제조 업체 • 중장비제조 업체 • 조선업체
건축미장	20	• 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 바닥, 벽체 미장	4월 / 6월 8월 / 10월	• 미장 기능사 • 타일기능사	• 건설회사 • 전문건설 업체 • 리모델링 업체
형틀목공	30	• 거푸집 제작을 위한 형틀목공	4월 / 6월 8월 / 10월	• 형틀목공 기능사	• 건설회사 • 전문건설 업체 • 리모델링 업체

- **모집기간** : 2015년 7월
- **교육일정** : 2015년 8월말 교육개시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우편, 홈페이지(www.busanctle.or.kr)접수
-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1(구, 덕천동 18-5)]
T. 051-330-8100~5 F. 051-330-8110

접수
문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재해복구공사 해당 전문공사 발주 추진

부산사회,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

부산사회는 1월 8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2층 이상의 단순한 전문공사가 복합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작년 호우, 폭설 등의 피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재해복구 공사가 다수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로써 단순히 2층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주된 전문공사 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 토목공사업 등으로 부분별하게 발주하고 있으며,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또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단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라도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사업 발주 건의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 업역준수를...

부산사회는 지난 1월 16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659곳에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 발주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놀이기구 등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 용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사업의 업무영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보수·보강 개념이 아닌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 후 새롭게 설치하는 신축공사에 해당되어 단일 전문공사로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사업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사회는 1월 20일 부산시 시하구청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4년도 업종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2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시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내하고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관련 개정 건의

공사 이행기간 변경시 간접노무비 및 경비 의무적으로 반영해 줄 것...

부산사회는 1월 22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실비산정과 관련하여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시 간접노무비 및 경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시 해당 직종의 단가는 최근 3개월의 금액을 참고하여 의무적으로 적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기준 2. 다. 개정)
-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증빙서류(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기준 2. 마. 개정)

❖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

종합건설업체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부산사회는 1월 22일 종합건설업체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회원사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것을 협조했다. 지속되는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타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부산지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함으로써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가 60%이상 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예코델타시티 조성공사 등의 대형공사 시행을 계기로 부산지역 건설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는 종합건설업체에게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산지역에서 시공 또는 시공예정인 건설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5년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2월 4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초차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5년 공공공사 시행계획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2월 12일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지난해 폭우로 발생된 재해복구를 위해 발주 예정인 재해복구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건의

7억원 미만 공동주택 보수공사 등 지역제한 기능토록...

부산시회는 2월 4일 부산지역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주택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이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는 입찰참가지역을 별도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지역 아파트의 소규모공사까지 타 지역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도 타 지역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처리 지연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실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자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7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지역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인정기능사 기능종목 재시행 건의

우리협회에서는 매년 2회(2월, 6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심사기관의 부재로 인해 시행이 중지된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인정기능사 종목이 금년에도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사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에서는 동 기능종목의 재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우리협회 「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규정, 별표4. 업종별 기능종목 분류표에 의하면 다른 전문건설업 중은 다수의 기능종목이 있어 기능인의 시공분야에 맞는 여러 종목에 응시가 가능하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해당 기능종목은 현재 용접, 판금·제관 종목만이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우수한 건설기능인의 양성과 전국 6,000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회원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이 용이하도록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인정기능사 종목에 대한 경력증 발급이 조속히 재시행 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건의했다.

한편, 인정기능사 관련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업등록·관리 → 인정기능사를 참고하면 된다.

❖ 하수박스 단면복구공사 등 보수·보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발주 건의

부산시회는 2월 10일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 69개 주요발주기관에 하수박스 단면복구공사 등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 교량, 터널, 하수박스 등의 단면복구공사 또는 해당 구조물의 보수·보강공사는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철근·콘크리트의 개량·보수·보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설물보수·보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최초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하자보수까지 완료한 공사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철근·콘크리트업체가 도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법령해석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건의

부산시회는 2월 11일 건설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이 우수한 중소전문건설업체 전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플랜트 건설업 등 7개 건설업 중에 국한된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전체 건설업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건의하였다. 부산시회는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衣), 식(食), 주(住)중 주(住)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설업의 경우 산업플랜트 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조경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의 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건설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통해 융합과 창조가 일어 날수 있도록 7개 건설업종으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종 전반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역준수 건의

부산시회는 2월 17일 부산지역 9개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업무내용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건설공사 발주시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수록된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건설관련제도」 책자를 함께 전달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단순한 크랙보수, 천정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설치 등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해당 주된 공사로 발주해야 하나 이를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이의 근절을 요청한 것이다.

〈참고〉

- 부대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써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②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비교 8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 해체공사에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여 협조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건의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장전3구역, 대연2구역 등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부산지역 1,700여 전문건설업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중앙1군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됨으로써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자사의 연구진 전문건설업체나 협력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서울 등 타 시·도로 역외 유출되는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자금력이 우수하고 시공사와 연구진이 같은 서울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부산지역 140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들은 수주난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청에 협조하여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조합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부산지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가 도급(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줄 것을 협조하였다.

아울러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조합에서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종별로 하도급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회원사들의 수주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을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시사항에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재해복구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역준수 건의

부산시회는 2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재해복구공사 발주시 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최근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기장군 소재 업체에게 공사를 도급주기 위하여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부대공사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공사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기장군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종목,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반영 건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79호, 2013.3.23.)에 따라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종목이 신설되어 2013.7.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천공기운전기능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격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85호, 2014.9.29.)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회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전국 900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한 회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신규 등록할 업체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요건 충족이 용이하도록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종목을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격 종목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중앙회에 요청했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천공기운전기능사의 등록기준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14. 5.7, 9월)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우리시회로 회신했다.

❖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3월 4일 국세청에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는 하도급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받을 경우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이를 재차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빠른 매각을 위해 저가로 매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까지 하도급자가 떠안음으로써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대물 변제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과 달리 공사현장별로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의 입·퇴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조업 등 타 산업과 같이 종업원 수를 월 50명 초과하여 고용한 전문건설업체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월 100명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에만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추진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시공사에 건의

부산시회는 3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된 진흥기업(주), (주)삼정, (주)대성건설 에게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총 공사금액의 50%이상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부산시회는 그 동안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이현승·서용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동 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50%이상 참여토록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정책발표를 이끌어내고, 동 공사의 1단계 1·2·3·4공구 일할공 고문에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50%이상 참여를 명시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부산시회는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의 시공자가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실질적인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이며, 해당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완화 건의

신기술 적용 대상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기회 보장 추진

부산시회는 3월 20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부산항 신항 남컨베이어단지 대나무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전에 특허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행정행위이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해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까지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입찰참가자격 정정을 건의 하였다.

이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시회 건의에 따라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제출전까지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정정하였지만, 동 공사의 특허보유기술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대나무망 설치공사를 한적이 있는 특허공법 시공기술자 1인 이상과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등을 충족하는 자재 소유주와의 체결한 협약서와 동의서 등 자재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특허기술개발자와 관계있는 특정업체에게 도급 주기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에 해당되므로 다시 입찰참가 자격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대상(광역시 안의 구·군)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3월 26일 행정자치부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 소재업체 또는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업체만으로 견적제출 대상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광역시 단위의 경우 자치구와 군이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부산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은 실제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가장군으로 허위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회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 건의한 것이다.



❖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 제의 건의

부산시회는 3월 26일 부산지역 89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에정금액 3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 목적물의 품질향상, 부산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품셈을 사용할 경우 품의 활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 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공공공사 설계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T/F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관련 법령 및 예규를 개정·시행하였으며, 실적공사비라는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영구 배제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는 2016. 12.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토록 개정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사회적 협동조합 및 파산자 건설업등록 제한 추진 등

부산시회는 2015년 1/4분기에 4차례에 걸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설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하도급계약추정제도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보복조치의 금지 대상자를 발주자와 함께 수급인도 포함토록하고 보복조치시 건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을 중앙회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부산시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하더라도 건설업을 등록하게 되면 타 공사의 건설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건설시장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되면서도 건설시장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부실 조장과 페이퍼 컴퍼니 양상 등 건설산업 전반의 도의적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를 건의한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에서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대상자는 발주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보복조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복조치의 대상을 발주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도 포함시키기 위함이며 하도급법령에서도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도 이를 명시하는 부분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동 제도 위반시 건설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건의한 것이다.

신기술 소개

하수관로 토탈 서비스 전문업체 한국라이텍(주) / 한국라이텍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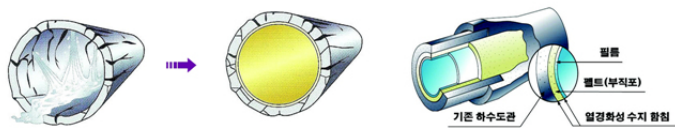
대표이사
황성도

한국라이텍(주)는 상·하수관로 비굴착보수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코랄데오'라는 회사창업이념을 가지고 임직원 모두 회사와 개인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01년 회사 창업 이후 수년간 연구개발의 결과, 2005년 3월 환경신기술 지정 제 118 호, 검증 제 75 호(TPLS공법)를 취득하여, 장비제작 판매 및 자재판매를 통하여 성장하였고, 2006년 5월 전문건설업(한국라이텍개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설립하여 하수관로 비굴착전체

보수공사업의 시공에 참여하여 왔다.
2011년 6월에 건설신기술 지정 제 624 호(TPLS-WR공법)를 개발, 취득하여 비굴착보수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한국라이텍(주)와 한국라이텍개발(주)가 각각 ISO 9001, ISO 14001을 취득하여 국제규격을 갖추었다.
2014년 12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8호)을 등록함으로써 하수관로 토탈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비굴착 보수공법 - 노후·파손된 관로를 땅을 파지 않고 보수하여 갱생하는 방법



좌·우 회전가능한 수압 및 공기압 병용 반전장치와 라이너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제118호, 검증 제75호) TPLS공법: Trenchless Pipe Lining System

- 회전형 반전장치 이용
 - 고정식에 비해 통행제한 감소
 - 보수관과 반전차량의 최단거리 확보
- 수압과 공기압의 병용사용
 - 굴곡小, 단차小: 공기압 반전
 - 굴곡大, 단차大: 수압 반전
- 가이드롤러 이용
 - 설치 및 이동이 간편한 가이드 롤러 개발
 - 입구 주름현상 방지
- 국산재료 개발 및 사용
 - LG화학과 공동개발
 - 취기성이 적어 작업이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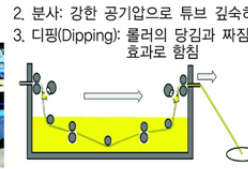
현장함침 및 롤삽입형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제624호)

TPLS - WR공법: Trenchless Pipe Lining System - Wetout in place & Roll insertion

• 현장함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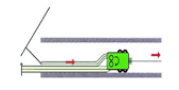


냉동탑차 이송/대기 과정생략
→ CO2 발생 절감
→ 조기경화/품질저하 예방



비용절감요소
→ 공장설립 및 운영비
→ 냉동탑차 운영비
→ 조기경화생성에 따른 손실

• 롤삽입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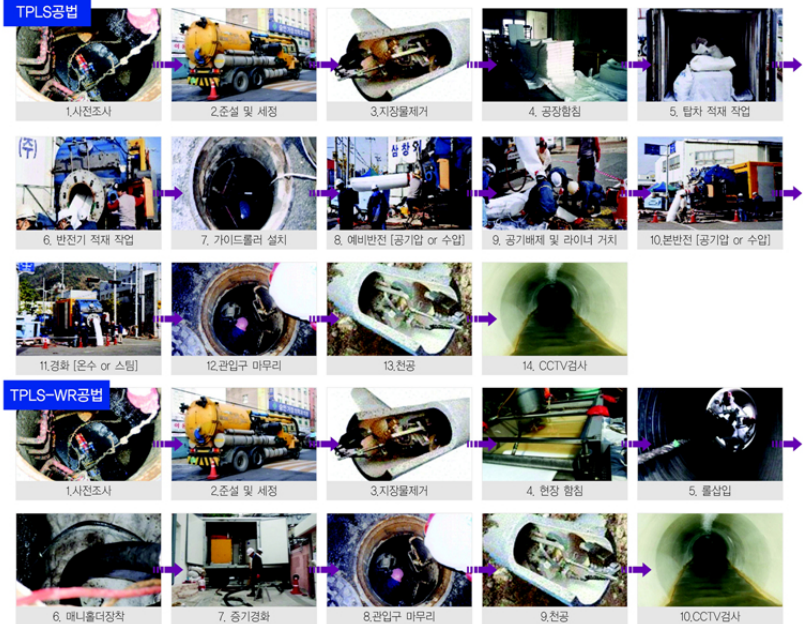
비용절감요소
→ 고가의 대형장비 생략
→ 협소공간에서 시공가능
→ 장력에 의한 자재손상 방지
→ 시공길이 제한 해결

• 현장함침용튜브



튜브조성(섬도와 밀도) 최적화
→ 수지함침속도 증가
→ 디핑/분사방식 함침(진공방식 대체)
비용절감요소

시공순서도



봄철 기승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 건강관리 주의사항



요즘 봄철 이상 고온과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봄에는 급격한 일교차, 건조한 환경, 황사, 꽃가루 등으로 인한 질병이 생김으로 건강관리에도 특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1년 중 3~4월이 일교차가 가장 심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출 자제 등을 비롯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 먼지가 목으로 들어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꽃가루 등 알레르기성 물질과 각종 미생물, 중금속, 방사능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동반한다.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한다.

또 가급적 콘택트렌즈 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질 하기 얼굴과 손발 씻기 등 개인위생 습관을 준수 해야한다.

실내에서는 빨래를 널어 습도를 유지하면서 평소보다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성분에 있다.

황사는 중국 북부 사막 지역에서 날아온 흙먼지가 대부분인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 매연이 많은 중국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섞인 것으로 중금속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다.

◆ 외출 시 황사전용 마스크 착용하고 손·발 자주 씻어야

미세먼지가 체내에 축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안과질환 등에 노출되기 쉽고, 심한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황사 발생 시 가급적 실외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시에는 일반 마스크 대신 황사 전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옷에 묻은 먼지는 깨끗하게 털어준 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잊게 도움을 주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 황사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체내에 축적된 미세먼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물'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관지에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 미역이나 다시마,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K와 독소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노폐물도 함께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봄철에는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생선, 콩 등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와 각종 영양소를 세끼 식사에 고루 배분되도록 여러 가지 식품으로 균형 있는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나른하고 입맛이 없을 때는 향긋한 봄나물과 봄채소를 많이 먹도록 한다. 봄나물의 특징은 다른 채소류보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등의 함량이 많다. 봄나물은 입맛을 돋우

고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 소화흡수가 잘 된다. 특유의 알싸한 맛과 단맛을 지닌 봄나물은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하고 마음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봄나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생활습관병(성인병) 예방,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노화 방지 등에도 효능이 있다. 봄나물은 색이 진하고 신선한 것이 향(香)도 강하고 영양도 풍부하다.

달래, 냉이, 쑥, 씀바귀, 두릅, 봄동, 취나물 등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나물은 어느 계절 채소보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다. 냉이(쑥국, 냉이조개국, 냉이초회, 달래된장찌개, 갈래초무침, 두릅초회, 두릅산적, 더덕생채, 취나물찜, 돌나물 김치, 탕명채, 봄나물 비빔밥 등 향긋한 봄나물 식단은 입맛을 돋아준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맨손체조, 스트레칭, 산책 등도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유산소운동을 일주일에 3~5회, 매회 30~50분 정도 하도록 한다.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손에 흠 묻히는 직업, 건설업이 한창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동트기 전에 일터에 나가 별 보면서 퇴근하던 그 시절. 그랬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건설은 잘 달려왔고, 나라를 먹여살린 효자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됐다. 살아남기조차 벅하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과거의 향수에 매달려선 안 된다.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할 때다.

천지개발(주) 임철규(62) 대표이사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여 년 전 단돈 5000만 원으로 회사를 세워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IMF 환란을 비롯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해 실적 550억 원을 올리는 부산 톱클래스 전문건설업체로 키워냈다.

임 대표에게 3, 4년전부터 불어닥친 건설 불황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독하다. 그러저럭 채산성이 있었던 관청 발주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확 달라진 게 컸다. "발주단가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특히 토공과 건설기계 부문은 30%나 깎았어요. 거기다 하청업체 후려치기까지 횡행하니 죽으라는 말과 다를 없었지요." 노임만 해도 정부와 시중단가 차이가 하루 5만 원에 이르고 역이 이만저만 아니란다. 건설업 특성상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할 때가 많지만 노임때문에 인력을 8시간밖에 가동할 수 없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요즘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 경기가 나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확히 말해 '아파트' 분양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해 부산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란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즈니스 순방외교로 인해 제 2의 중동붐 기대가 일고 있는데 대해서도 물량이 늘긴 하겠으나, 결코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외생변수가 긍정적이긴 하나, 과거처럼 무작정 덩벼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자재와 인력 면에서 우리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노동집약 분야는 개도국들에 잠식당하는 한편으로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형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숨만 내릴 수는 없다. 살기 위해, 아니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전국 10여 개 사업장 현장소장과 핵심 인력을 모조리 부산에 불러들여 혁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모든 생각을 뒤집어보라고 다그쳤다. 기존의 관행을 깬 창의적 발상과 다른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절실했다. 임 대표에게 혁신은 창조적 파괴와 맥이 닿아 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유지의 신 비슈누,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가 인도의 3대 주신인데 이들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신은 시바입니다. 왜냐고요? 기존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도, 그걸 유지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괴와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 창조란 무엇인가. 그 본질은 창의성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의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깨부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와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건설에서 도 마찬가지. 힘들고, 터려우며, 위협하기까지 한 3D업종 이미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업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임 대표는 강조했다.

천지개발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과거 도로 위주에서 철도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지난해 울산~포항 철도노반공사가 대표적 사례. 6개월에 걸쳐 아치교가 포함된 고난도 공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하루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큰 사고 없이 마쳤던 게 가장 뿌듯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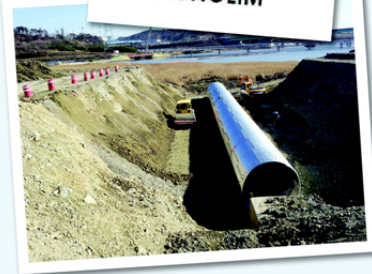
임 대표는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어적 경영을 택했다.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저가 수주를 피하는 게 우선이다. 욕심부리다간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기에 관리능력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 기본. 여기에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 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감명을 준 영화 '빠빠용'을 즐겨 본다.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사나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임 대표는 잘 알고 있다.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최문학



한 구두담이 소년이 있었다. 어느날 호화 외제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이 내려 구두를 닦았다. 소년이 낯생 처음 보는 듯 차를 주시하자 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갑부인 아버지가 사주셨어. 부럽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당차게 대답했다. "아뇨, 저는 돈을 벌어서 제 자식에게 저런 차를 사주고 싶어요." 이 얘기의 끝자는 긍정 마인드다.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는 생각 말이다. 열심히 일하면 보답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이처럼 당당할 수가 있었다.

동림건설 최문학(65) 대표는 수많은 위기를 긍정 마인드로 이겨낸 건설인이다. 운수업을 하다 건설업에 뛰어들 그는 포장공사로 시작해 외형이 큰 토공, 여기에 상하수도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오뎀이처럼 일어선 그가 바로 최 대표다. 경원이 일천해 공사 시작 2년 만에 부도의 땃에 걸렸다. 운수업에서 벌었던 비상금을 다 털어넣었다. 빈털털이로 재기해 수십만 원짜리 공사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아플사. 7년 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무려 38억 원이 공공 묶였다. 전차상거래 어음을 그가 갚아야 했다. "은행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대금 보증까지 저야하는 희한한 제도이더군요. 겨우 6억 원만 건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살을 에는 고통과 함께 사업을 접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내몰렸지만 긍정 마인드로 무장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동림건설의 기술력과 신용도를 믿고 선뜻 10억 원을 지원해준 것이다. 순식간에 기사화됐다.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약자에게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을 뇌리에 새겼더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번째 절체절명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이 찾아왔다. 마산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서울 세브란스병원까지 찾았다. 결과는 대장암 말기에 방광 전이까지 된 상태. 급히 수술을 마쳤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 여기서 그는 큰 마음을 먹는다.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고. 잇을 건 잇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시작하자고 간절히 기도했다. 욕심을 버리고, 된다는 자신감으로 마음을 재무장했다.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늘이 응답했다. 1년이 지나도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이다. 전이가 진행된 말기암에서 암 덩어리가 사라졌다니, 신의 은총이 아닌가. 20kg 이상 빠졌던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에게선 암 투병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 2의 삶은 활기에 넘친다. 사업에 매진하면서도 주 3회 등산을 어김없이 지킨다. 집 근처 이기대 주변을 2시간 정도 걷는다. 새 삶을 선물한 하늘에 감사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으로 매년 병원에 기부한다. 실적도 따라왔다. 2년 전 184억 원에서 작년에는 32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터널 구간 사업을 수주한 덕에 올해는 400억 원을 넘본다.



긍정 마인드로 톨돌 뚫고 그에게 삼한기업과 한신공영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얘기다. "길 닦는 사람이 적선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자산을 제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죠."

욕심을 버린 그에게 덩핑수주는 남 얘기다. 그래야 부실시공이 없이 튼튼하고도 믿음을 주는 건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기대 수준에 최대한 다가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자, 건설가치다. 그는 건설인의 길을 걸으며 '위기가 곧 기회'임을 체험으로 깨달았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 개념을 통해서 그걸 증명했다. 중국 문명만 하더라도 온난한 기후에 기원전 양쯔강 유역이 아니라 살을 에는 추위와 범람으로 살기 힘든 황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건 도전, 곧 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설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정글이다. 견적서를 내고, 수주할 때 적정액을 따지기가 불가능하다. 공이 어디로 뿔지 아무도 모른다. 원청업체들의 자금 흐름이나 내부 사정을 자제할 수 없다. 이처럼 혼돈스러운 상황에선 대처 방식, 즉 응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대표는 말한다. 긍정 마인드와 자신감을 잊지 말라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 정주영 왕회장의 명언은 참이다.

글. 스토리박스 최원열

건설산업정보 PART.1

**세부목차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3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39
❖ 산림청 훈령(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폐지	40
❖ 국가계약예규 개정	40
❖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41
❖ 국가 및 지방계약예규 개정	4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계약변경 및 추가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조항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 12. 31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원사업자가 공사계약내용의 변경 및 추가공사시 서면발급을 의무화 하고,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미작성시에 공사 대금을 확보 받을 수 있는 하도급계약의 추정제 활용방안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67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43호, 2014. 11. 4】

1. 계약변경 및 추가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조항 신설(제2, 3조)

(신설) 공사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 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 부여

2. 하도급계약의 추정제 활용방안 명확화 (제4조)

(개정) 위탁사실 확인 요청(추정제) 방법 명확화 및 확인요청자를 원사업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으로 확대



3. 부당특약 설정 금지 조항 신설 (제5조)

(신설) 상호 합의하여 특약 설정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 요구 금지 및 해당 부당특약 효력 무효

4. 적정한 하도급 계약금액 결정 조항 신설 (제9조)

(신설) 계약의 추가공사 요구시 공사내용, 물량,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강요 금지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제12조)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 및 어음·외담대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등

6. 부당한 위탁취소(계약해지) 금지 조항 신설 (제20조)

(신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 및 변경 금지, 검사끝난 목적물 인수 거부지연행위 금지

7.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명확화 (제27조)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제 비율 및 어음 만기일 준수 등

8. 부당 감액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 신설 (제28조)

(신설)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 고시 이율(연리 20%)에 따른 이자 지급



9. 대물변제 금지규정 명확화 (제29조)

(개정) 대물변제시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10. 선금금 사용제한 금지 조항 신설 (제33조)

(신설) 선금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금금 인출 또는 사용제한 행위 금지

11. 하자담보책임 규정 명확화 (제35조)

(개정)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면책,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12. 공사중지 요청권한 확대 (제37조)

(개정) 선금금, 기성금 미지급 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 권한 부여

13. 계약해제·해지 요건 명확화 (제38조)

(개정) 원사업자의 금융기관 거래지지, 등록말소·영업정지, 어음 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 계약해지 요청 권한 확대 등

14. 분쟁조정기관 확대 (제43조)

(개정)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 포함

※ 시행일자 : '14. 12. 3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우수 건설업자 다른 업종 등록시 자본금의 1/2을 감면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 12. 3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사 범위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 12. 31】

가.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신설(규칙 제23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 종전에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시공능력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개선(안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2)
 -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액을 선정 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연차별로 가중 평균하도록 하여 최근 수행한 공사 실적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평점이 0이하인 경우 종전에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하던 것을 0 이하로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임.

건설산업정보 PART.1

- (3) 소규모 공사 범위에 대한 제약조건 완화(제13조의2) 개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함.

나. 공포일자 : 2014.12.31(수)

다. 시행일자 : 2015. 8. 1부터(단,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6항·제9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 제7항 및 제2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산림청 훈령(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폐지

산림 및 공사업계간 분쟁 해소 기대

약제살포 및 전정작업 등 조경수목 관리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방제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에서의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나무병원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만 위탁·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협회는 동 지침 폐지 또는 개정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우리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 제1099호, '12.11.3제정)을 전면 폐지('15.11.15일자)함에 따라 산림 및 공사업계간 분쟁 해소와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회원사들의 수주영역 확대를 기대해 본다.

❖ 국가계약예규 개정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 간접비 반영 등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우비용 또는 신용평가로 평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2015. 1. 1】

1.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예정가격 작성기준)

(현행)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이 공사원가에 미 반영
(개정)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 공사원가에 반영
(이유) 관급자재도 사급자재와 마찬가지로 보관비, 운반비 등 비용이 발생하나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

2.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적격심사기준)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일률적으로 재우비용로서 평가
(개정)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우비용 또는 신용평가로 평가
(이유) 중소기업가 주로 참여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입찰자의 선택에 따른 평가자료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3. 입찰참가기업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절차 개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현행) 입찰참가자가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위로 부터 발급받아 제출
(개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
(이유) 서류발급 신청·수령 등 입찰참가업체의 불편 및 거래비용 절감하기 위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공사입찰차 경영상태 평가시 재우비용 외 ‘신용평가’ 추가”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예규의 개정(2015. 1. 1) 후속조치로 2015. 2. 1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

1.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현행)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우비용로 평가
(개정)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는 재우비용,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평가
(이유) 지방계약예규 기준과 일치시켜 업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함

2.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신설)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 공사예산의 10/1000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
(이유) 기획재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후 계약예규 해당조항 개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가 및 지방계약예규 개정

공사비 현실화 ‘표준시장단가제’ 첫발...실적공사비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공공공사 설계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3월 1일(지방계약예규는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8호(2015. 3. 1),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2015. 3. 5)】

1. 실적공사비 명칭 변경

(현행) 실적공사비 → (개정) 표준시장단가

2.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6. 12. 31일 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2016년도 하반기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이 있다고 물었다.

"아주머니 당근있어요?"

약사는 당근이 없다고 했고 토끼는 그냥 갔지만 다음 날 또 와서 물었다.

"아주머니 당근있어요?"

"없대니까~!!"

당근이지!

다음날 토끼는 또 약국에 와서 물었다.

"아주머니 당근있어요?"

"없다고 했지!!! 자꾸 와서 귀찮게 물어보면

가위로 확 귀를 잘라버릴꺼야!"

다음날 토끼는 또 약국에 찾아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가위있어요?"

"아니 없어"

그러자 토끼가 이렇게 물었어요!

"다행이네요 당근 있어요?"



할머니

깜박했던 동창회가 오늘이라 급히 나서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했다.

학생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말했다.

"할머니 아직 아닌데요, 아직 빨간 불이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니야, 동창회 늦어, 지금 건너야해." 라며

막무가내로 건너가려고 했다.

"할머니, 빨간불일 때 건너면 위험해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건너지 못하게 잡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학생의 뒤통수를 냅다 치며 말했다.

"이눔아, 파란불일 때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건널 수 있어!"



오래 살면 뭐해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했다.

남자: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남자:네.

의사: 그럼 담배와 술은 얼마나 하시나요?

남자: 전혀 안합니다.

의사: 그럼 운전은요?

남자: 전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안합니다.

의사: 그럼 도박이나 여자는요?

남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

의사: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산업정보 PART.2

**세부목차

- ❖ 201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분석.....44
- ❖ 2014.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안내.....46
- ❖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47
- ❖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도입단가).....47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절차.....48
- ❖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의 2015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49
-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의무사용(단계별 전환)안내.....49
- ❖ 201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50
- ❖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50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내.....51
-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안내.....51
- ❖ 건설 및 소상공인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 시행 안내.....51
- ❖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52
- ❖ 2015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52
- ❖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안내.....53
-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유의사항 안내.....53

❖ 201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분석

2014년도 부산전문건설업계 기성액 4조7,689억원으로 전년도 4조9,345억원보다 3.4%감소

지난 2월16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접수 마감한 결과 2013년 4조 9,345억원보다 3.4%(1,656억)감소한 4조7,68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사회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건의를 통하여 2014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국최다 발주의 성과로 부산지역에서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627억(3.33%) 증가하였으나, 반면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부산지역 하도급 227억(-5.22%) 감소, 타지역 하도급이 2,007억(-15.48%) 감소, 해외건설 공사 실적이 382억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부산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및 대형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타지역으로 진출과 더불어 공공 공사 발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전년도 대비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392억(△31.4%)감소, 철강재설치공 사업은 439억(△67.7%)감소, 준설공사업은 457억(△47.4%) 감소로 그 폭이 큰 반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71억(10.3%)증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74억(13.9%)등 증가폭은 소폭에 그쳤다.



■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 현황(기성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기성률(비율%)
	원도급	하도급	계	원도급	하도급	계	
실 내 건 축 토 공	274,090,258	201,536,988	475,627,246	286,003,961	215,655,441	501,659,402	5.5%
미장방수조적 석 공	25,177,852	747,241,966	772,419,818	37,602,049	804,335,937	841,937,986	9.0%
도 장	56,542,876	206,269,217	262,812,093	54,063,900	235,927,739	289,991,639	10.3%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 철조	7,192,105	52,963,076	60,155,181	8,511,014	51,995,339	60,506,353	0.6%
재판단건설물량	59,159,737	39,361,624	98,521,361	54,853,756	39,610,987	94,464,743	-4.1%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24,779,990	100,321,946	125,101,936	30,059,595	55,803,668	85,863,263	-31.4%
보방·그라우팅	84,810,357	272,567,234	357,377,591	78,028,142	269,534,655	347,562,797	-2.7%
철도·케도	7,988,751	97,795,690	105,784,441	11,855,332	90,616,946	102,472,278	-3.1%
포	117,342,806	1,186,802,685	1,304,145,491	96,608,301	1,145,759,410	1,242,367,711	-4.7%
수	62,790,180	69,025,505	131,815,685	69,243,771	66,918,945	136,162,716	3.3%
조 경 식 재	8,115,536	325,451,070	333,566,606	6,143,929	262,372,437	268,516,366	-19.5%
조 경 식 재	26,594,149	0	26,594,149	8,145,993	0	8,145,993	-69.4%
조 경 식 재	41,595,342	48,139,882	89,735,224	49,369,775	40,626,551	89,996,326	0.3%
조 경 식 재	10,130,464	321,846,955	331,977,419	8,960,541	316,489,998	325,450,539	-2.0%
조 경 식 재	37,494,195	64,541,191	102,035,386	45,311,111	63,016,180	108,327,291	6.2%
조 경 식 재	18,325,694	35,037,111	53,362,805	20,724,003	40,043,856	60,767,859	13.9%
준 설	8,311,537	108,416,367	117,727,904	9,742,280	95,809,978	105,552,258	-10.3%
승 강 기	56,384,814	8,598,375	64,983,189	9,889,630	11,125,860	21,015,490	-67.7%
계	36,989,686	59,584,078	96,573,764	31,016,616	19,773,871	50,790,487	-47.4%
계	11,597,866	12,585,159	24,183,025	16,534,476	10,821,157	27,355,633	13.1%
계	975,414,195	3,959,086,119	4,934,500,314	932,688,175	3,836,238,955	4,768,907,130	-3.4%

■ 부산지역 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도 비교(증·감)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비율%)	기성액(비율%)	
공 공 공 사	원도급	285,258,353	241,569,883	332,729,448	254,165,753	47,471,095 16.64%	12,595,870 5.21%
	하도급	725,629,700	435,289,019	809,021,795	412,560,713	83,392,095 11.49%	-22,728,306 -5.22%
계	1,010,888,053	676,858,902	1,141,751,243	666,726,466	130,863,190 12.95%	-10,132,436 -1.50%	
민 간 공 사	원도급	376,254,685	313,183,038	408,420,239	335,326,350	33,165,554 8.81%	22,143,312 7.07%
	하도급	1,382,386,152	895,856,012	1,434,839,576	946,590,231	52,453,424 3.79%	50,734,219 5.66%
계	1,758,640,837	1,209,039,050	1,844,259,815	1,281,916,581	85,618,978 4.87%	72,877,531 6.03%	
합 계	2,769,528,890	1,885,897,952	2,986,011,058	1,948,643,047	216,482,168 7.82%	62,745,095 3.33%	

건설산업정보 PART.2

■ 타지역 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도 비교(증·감)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	기성액	계약액(비율%)	기성액(비율%)	
공공공사	원도급	116,281,443	100,439,746	106,909,267	91,536,523	-9,372,176 -8.06%	-8,903,223 -8.86%
	하도급	2,417,925,794	1,297,344,705	2,021,305,496	1,096,551,945	-396,620,298 -16.40%	-200,792,760 -15.48%
	계	2,534,207,237	1,397,784,451	2,128,214,763	1,188,088,468	-405,992,474 -16.02%	-209,695,983 -15.00%
민간공사	원도급	401,208,927	318,590,193	325,851,572	249,824,399	-75,357,355 -18.78%	-68,765,794 -21.58%
	하도급	1,686,566,989	1,135,232,948	1,867,712,292	1,223,654,147	181,145,303 10.74%	88,421,199 7.79%
	계	2,087,775,916	1,453,823,141	2,193,563,864	1,473,478,546	105,787,948 5.07%	19,655,405 1.35%
합계	4,621,983,153	2,851,607,592	4,321,778,627	2,661,567,014	-300,204,526 -6.50%	-190,040,578 -6.66%	

※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 제외

❖ 2014.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안내

우리협회는 시·도회 모니터(308명)를 활용하여 분기별 전문건설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4분기 전문건설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실문자를 배포한 308개사 중 83개사(우효회수율: 26.9%)의 실문자가 회수되어 4/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 결과, 2014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분기보다 7.2% 상승한 56.6%로 조사되면서 3/4분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39%)'에 대한 응답비율이 6% 줄어 2분기 이후로 감소세를 유지,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4%)'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투자활성화(14%)'는 10% 증가, '부동산규제완화(3%)'는 3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5%)', '자금부족(18%)', '인력난·인건비 상승(18%)', '건설자재 가격상승(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에 비해 '건설자재 가격상승'의 응답비중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자금사정지수는 3분기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 다음 분기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금조달방법은 여전히 '대표자 개인자금(50%)'과 '금융기관 차입(31%)'이 다수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산업 통계·요율 → 건설업 통계에서 '2014.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안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다.

❖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

보강토옹벽,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일부 개정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 적용될 표준품셈은 294개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공사에서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 비트에 의한 일반 천공 신설,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평판(400kg/cm²)와 고압분사전용장비 신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 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벽다,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품셈에서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다.

❖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1.8% 상승 158,590원...일방직중 149,959원

올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1.8% 오른 15만 8,59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월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0만8,086원 △보통인부 8만7,805원 △특별인부 10만8,245원 △비계공 15만8,014원 △형틀목공 15만1,091원 △철근공 14만157원 △큰콘크리트공 13만9,853원 △포장공 12만1,878원 △조적공 12만5,105원 △건축목공 13만9,327원 △방수공 10만1,093원 △미장공 14만811원 △타일공 13만3,837원 △배관공(수도) 12만9,775원 △건설기계운전자 12만3,642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되며 개별직종별 노임단가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다.

건설산업정보 PART.2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철저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부산시회는 그 동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및 위반시 제재처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연맹 발표자료에 따른 '15. 1월 건설기계 대금지급금액이 73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동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금년 6월중 발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시회는 동 제도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 재차 안내하였다.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지급보증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보증 수수료율 인하(2.85% → 2.0%)와 보증절차 간소화, 보증한도 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보증 위험가중치 조정(3배 → 2배) 등을 개선하였으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유예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

- 내용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보증면제대상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0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8호
- 건설업관리규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의 2015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별 2015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을 수집·취합하여 회원사에 안내한다.

□ 2015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 고
1	부산광역시	46 건	131,210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248 건	118,261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9 건	2,176	
4	부산광역시 구·군청	603 건	234,955	
5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등)	269 건	104,652	
6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92 건	114,194	
계		1,487 건	705,448	

※ 발주기관별 세부 발주계획은 부산시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접속 후 회원전용공간⇒건설공사정보⇒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의무사용(단계별 전환)안내

조달청에서는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부정낙찰을 원천 차단하고자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 입찰서비스체계를 구축(2014. 10. 31)하여 현재 시범운영(안전 입찰서비스 방식과 기존 입찰참여 방식 병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단계별로 안전 입찰서비스 방식으로만 입찰에 참여토록 전환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사전에 가상PC 운용 OS 설치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투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입찰 관련 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이용전환 계획〉

구분	1단계 (조달청 집행 입찰)			2단계 (수요기관 집행 입찰)
	시설공사	물품	용역	전체입찰
대상 시기	2015. 2. 16공고분 부터	2015. 3. 16공고분 부터	2015. 4. 16공고분 부터	2015. 5. 1 공고분 부터

- 단,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신청서(2회 사용) 작성해 48시간 예외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정보 PART.2

❖ 201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

부산시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 기준 단일화
 - 졸업기준 존치 :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2014년 → 2017년)
 - 적용대상 추가 :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3. 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기간 연장
 - 2014년 → 2015년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표준시장단가 제도 시행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 대체

우리회회는 그 동안 전문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또는 300억원 미만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의원입법 추진하고 정부 및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여 왔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는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고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15.1.22)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15.3.1일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써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영구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100~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단가 현실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대비 평균 4.18%가 상승하였으며, 1,968개 항목 중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고 현실 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차례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2015년 상반기('15.3.1)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자정보 → "표준시장단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내

부산지역 6개 교육위탁기관으로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1회)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위탁 교육기관에서 동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채용해야 한다.

동 교육 제도는 '12. 6월부터 건설공사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4. 12월부터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 교육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주 또는 일용근로자의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부산시회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채용 전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시 동 교육을 이수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위탁 전문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2월 11일 회원사에서 입찰·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발주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입찰·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에 따른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재심청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사조정 결과는 50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사안에 따라 수년이 소요되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하다.

❖ 건설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 시행 안내

부산시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력이 빈번한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신고 효율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고 위해 「건설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서비스」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를 2월 17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정보 PART.2

❖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작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대비 평균 4.18% 상승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써 국무총리 주재 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15.1.22)를 통해 최종 확정 되었으며, '15.3.1일부터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영구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단가 현실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대비 평균 4.18% 상승하였으며, 1,968개 항목 중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고 현실 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고, 나머지 항목도 차례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시장단가에서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집"을 다운로드받아 보면 된다.

❖ 2015년도 건설기계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15년도 건설기계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계의 시간당 기계손료와 주연료 및 집재료 그리고 운전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산출표에서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이며 도입기계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2015년 1월 2일 현재 1,099원(원 미만 절사)으로 책정하여 산출되었다. 환율에 3%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경유를 말하며, 주연료 가격은 구입 조건 또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재되지 않았다.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등 집재료는 피스톤 및 링의 상태,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며, 서블, 백호, 드래그라인, 크램셀, 비자주식 스크레이퍼 등과 같이 주연료가 없는 기계에 대한 집재료는 표준품셈(토목부문) '11-3 운전경비 산정'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2015년 건설기계경비 산출표"를 참고하면 된다.



❖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3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회원사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1.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면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2. 고충민원 신청방법

-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
 -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3) 관계 행정기관 등의 명칭
 - (4)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6) 대표자의 인적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3.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기간

- 처리기간 : 60일(일·공휴일 제외,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유의사항 안내

최근 건설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공사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현장 기능인력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문건설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년인력의 취업기피와 현장 기능인력의 급격한 고령화는 인력수급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우려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3월 9일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채용하거나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또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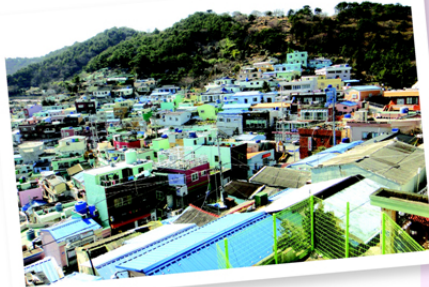
도시재생, 재정비사업 모범사례 안내

도시재생(都市再生)의 이점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1964년에 만들어진 부산의 오래된 도로인 산복도로는 마을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이며, 산복도로의 자생적 재생물결과 더불어, 지난 2010년에 부산광역시는 산복도로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 7대 프로젝트, 3개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추진 중이고, 2011년 이후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간계획과 U-기술의 융합을 전제로 4+3+1의 유비쿼터스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3개 U-CITY 특구 중 하나로 산복도로 지역을 선정하고 산복도로의 'Smart Hills'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핵심사업의 일환이다.



1. 산복도로, 초량 이바구길



2.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 - 감천문화마을

계단식 주택,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 골목길, 파스텔톤의 색채,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며, 독특한 장소성과 더불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원형 보존과 문화적 재생을 통한 창조적 재생마을



유권해석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3억원 미만) 발주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발주가능 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는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동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건설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로 하여 공고하면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끼리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예시)

공사명 : ○○학교 스텐드보수공사 및 교실 창호교체공사

공사개요 : 스텐드보수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원)

교실 창호교체공사(건축구조물·창호공사업, 1억원)

기타 부대공사(5천만원)

공사금액 : 2억5천만원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건축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단, 업종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 또는 입찰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 업종별로 분할하여 별도 발주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입찰참가자의 수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닐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1AA-1502-094057, 2015.02.24)



건설판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다. 여기에서 '공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담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다53457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 법률정보 판례

1.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상은 면제대상인데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모두에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법은 특별법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지는 못할 것임.
- 그러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 분류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인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해상선박 건설시 선박내부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
- 따라서, 선박건조는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이므로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지 않음.

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실질적인 기간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 전문공사 3억원 미만(별지5 참조)은 최근 3년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함.
- 또한,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별지3, 4 참조)는 최근 5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법률 제11794호, 2013.5.22)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건설기술자 등급을 받아야 함.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능사 자격 취득자도 초급 등의 건설기술자 등급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학·경력자 및 기능사 자격 취득자 등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을 받을 경우 기능사 자격과는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공기운전기기사 자격종목 취득자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천공기운전기기사 자격종목이 신설되어 2013.7.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행 건설업관리규정 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천공기운전기기사 자격 취득자도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2015.3.3)

6.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착공시까지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 포기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 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할 경우 재공고에 의할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의할지는 발주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7.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및 재직증명서류의 종류는?

- 재직중인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력수첩 사본 및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총액입찰 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을 과다·과소 계산한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수량을 잘못 계산하여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을 과다·과소 계산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존재하는 경우 수량 산출의 오류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가능함.



9. 건설공사 시공중 건설업 등록번호상 시 공중중인 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상기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1회 정기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원도급사는 적정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보다 적다고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자가 공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전 건설업법 제17조에서는 도급한도액이라고 하여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으나 1997.7.1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음)



특별기고



이 정 재 교수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친환경도시 부산을 위하여

늦은 저녁 황령산에 올라 해운대 일대를 바라보면 다양한 건물들이 선사하는 야경에 경이로운 느낌이 든다.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에 지어진 아이파크, 두산위브 더제니스와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내뿜는 빛의 향연은 부산의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초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외관의 화려함만큼 과도한 에너지 소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

생태도시, 녹색도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등과 같이 친환경도시를 위한 다양한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정책제안,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세계 196개 당사국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배출량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각 구별로 건축물의 총생애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량 및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공사입찰 평가 시에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친환경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의 의무화 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각 시별로 건축심의규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등의 의무화 기준을, 대전시 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그린빌딩 인정 등에 대한 의무화 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마천루의 도시 부산

부산에 준비하게 늘어난 초고층 건물은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을 넘어 부산을 마천루의 도시로 만들었다. 구조설계와 시공기술의 발달로 고층건물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도한 냉난방 비용, 환기부족,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리커튼월은 여름철 많은 일사량으로 인한 냉방부하의 증가로 많은 냉방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은 외관상 화려하고 미려하지만, 단열능성이 낮은 유리의 과도한 사용과 바람길의 차단되는 건축물의 구조 및 배치 등이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원인이 되어, 온실효과나 열손실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24시간 가동해야하는 문제로 입주 후 한 달 만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4위, 신축 중인 고층건물의 10위내에 무려 8곳이 부산에 건설 중이며, 전국 초고층 건물 중 36%가 부산에 존재한다. 신축되는 건축물에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나, 도시환경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 달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지금처럼 관계법령만을 준수하는 형태의 설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실현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법령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건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만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타지역처럼 부산도 부산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시의 공공성과 환경성, 거주자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제·개정된 관계법령만을 준수하는 문화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인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부산만의 친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앞장서 나가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부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내일을 예측하고 1년, 2년, 3년후의 세상에는 무슨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는 시대라면 그예측이 더욱더 힘들어지고있다. 무엇이 기초고 무엇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그 변화의 속으로 함께 산책해본다면 그 재미도 스텝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지속해서 다가가고있기 때문이다.

<제1편 : 3D 프린터>

• 3D프린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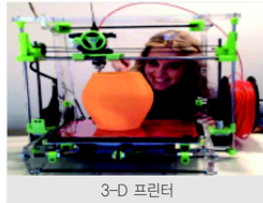
- 잉크 대신 합성수지, 분말, 세포 등을 얇은 두께로 층층이 쌓아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공작기계, 간단히 말해 3차원의 입체물을 만들어 내는 프린터로써, 재료에 따라 고체 기반(FDM), 액체 기반(폴리젯), 파우더 기반(SLS)방식으로 나뉜다.
- 기존 프린터가 종이 위에 글씨나 그림을 찍어내는 인쇄라면, 3D 프린터는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 3D프린터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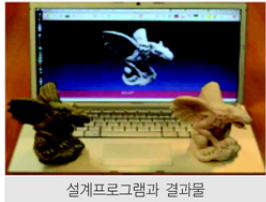
- 시장조사 기관들은 3D프린터가 실질적인 다품목 소량생산과 맞춤형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3D프린터와 관련한 시장규모는 '18년 최대 162억 달러(17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 프린터(잉크젯)



3-D 프린터



설계프로그램과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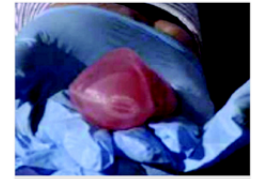
우리나라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 ▶ '14년 국내 3D 프린팅 장비 시장 규모는 850~900억 원, 재료 및 서비스 시장까지 합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수준('15,1.29, 이데일리)
- '96년 대우자동차에서 관련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후, '99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잇따라 자동차 제조에 활용
- 이후 국내 소비재 가진 업체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의료기기와 로봇, 조선 등에서의 수요가 증가
- * 우리나라는 미국계 업체인 스트라타시스와 3D 시스템즈가 시장을 양분

• 3D 프린터 활용분야

1. 의료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는 바이오 잉크를 입체적으로 쌓아 신장, 귀, 뼈 등의 인공장기를 만들어 고난도 수술 및 환자의 신체구조에 맞는 보조기구 개발 가능



신장

2. 자동차, 항공우주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해왔고, 최근에는 완성차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항공분야에서는 엔진 등 부품을 만들고, 여객기의 무게를 줄이는데 활용중이다. 우주분야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에서부터 인공위성 망원경을 제작하는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

3.珠寶리,패션

개도국의 낮은 수공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의珠寶리 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에서는 완성에 이르는 시간의 단축과 주문량 및 디자인 변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4. 농업

유수의 농기계 업계에서는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고가의 농기계 부품을 대체하는 기업도 탄생했다. 뿐만 아니라 병해충 종합 관리시스템, 토양연구,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5. 식품

미세 조류, 배양육, 식품 곤충 등을 원료로 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품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지고 있다.



유기농 스낵

6. 건설

최근에는 건축회사들이 3D프린터로 실제 사람이 거주할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3D프린터로 만든 집 공동체가 만들어질 날이 멀지 않았으며, 3D프린터로 집을 지으면 프린팅하고 남은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고, 건축자재 운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산형으로 건설사에 보급된다면 건축 시장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대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생활밀착형 SOC 개념 및 정의

-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관련 정의들 중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가장 많은 기관 또는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요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소규모의 SOC 시설 또는 사업
- 지역 기반의 SOC 시설 또는 사업
- 국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사업
-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사업
-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

2. 전문건설업체의 의식 및 요구

2-1 조사 개요

-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체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건설업체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조사"라는 제목으로 수행된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기간 : 2014. 7. 30 ~ 8. 14(15일간)
- 설문대상 :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전국 시·도회 소속 전체 회원사(※1개 업체당 1부씩 설문)
- 설문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 설문문항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 확대 방안, 정책 요구사항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

2-2 조사 및 분석 결과

- 응답자 정보를 제외한 총 8개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참여경험'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7.5%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여, 아직 생활밀착형 SOC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밀착형 SOC 시설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8.5%에 불과함.
-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76.8%로 나타났고, '투자 확대 요구수준'은 '현재 대비 50% 이상 투자 확대'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자 확대의 의미(효과)'에서는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이 각각 34.6%, 28.2%로 높게 나타남.
- '바람직한 투자 형태'로는 '지자체(시·군·구) 사업을 통한 확대'가 63.3%로 가장 높음.
- 본 연구에서 선별한 6개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확대 부문에서는 '안전시설 부문'이 25.5%, '복지시설 부문'이 22.3%, '주거시설 부문'이 20.8%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27개 생활밀착형 SOC 중점사업 중 가장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상위 5개 사업은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8.7%)',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사업(8.2%)',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7.1%)', '차량 확충·정비 사업(7.0%)',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5.9%)'으로 조사됨.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사항으로는 분리발주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7.7%로 가장 높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또한 지역업체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3.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3-1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

- 현재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확보 및 시설의 질적 수준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으로, 현재 대비 최소 20% 이상* 최대 100%(2배) 이상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확대되면 1)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복지 향상, 2)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크게 기대됨.
- 또한 취약시설의 정비에 따른 안전 확보 및 국민 생활의 편의 증대라는 많은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기업들과 함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수요를 발굴해야 함.
-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우선순위는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투자 확대가 가장 우선시되며, 국가(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을 통한 사업 확대가 병행이 필요함.
- 분류별로는 안전 부문의 투자확대, 복지 및 주거 부문의 투자확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선별한 27개의 생활밀착형 SOC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8개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음. 이 밖에도 27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모두 단·중·장기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양적 공급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우선순위

우선 순위	분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1순위 (안전)	재난대비시설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하천시설	·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주택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2순위 (복지·주거)	상하수도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학교교육시설	·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아동·청소년시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3순위 (교통·여가)	주차장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도로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기타	추가 제안 사업 (※검토대상)	· 해안지역 안전·구명시설 설치 사업
		· 장기적 가용 대비시설 조성 사업
		· 지역 단위 우수·분노 처리시설 확충 사업
		· 농어촌 영농 편의시설 확충 사업
		· 퇴직 중년 복지시설 조성 사업
		· 읍면부속 등 보행이용시설 개선 사업
· 폐가 및 무허가시설물 철거·정비 사업 등		

3-2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전문건설업체는 주로 소규모의 원도급 공사 및 하도급 공사를 주로 담당해 규모는 작지만 파급영향이 큰 소규모 사업의 발굴에 적합함.
- 따라서 이러한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규모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분리발주 등을 통해 전문공사로 발주되거나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것이 필요함. 차선책으로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

- 지역의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상 공모' 등의 수행도 고려될 수 있음.
- 사업의 시행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우대하는 제한경쟁이나 PQ 및 입찰심사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결론

-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2014.9.18)를 통해 2015년 SOC 예산의 정부안을 2014년보다 약 3.0% 증액된 2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SOC 예산안을 증액한 것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는 다시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더욱이 201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은 노후 SOC 개선 등의 안전 부문 투자 규모가 늘었다는 특성이 있으나, 여전히 기존 SOC 투자와 같이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부문의 대형 SOC 위주 예산은 증액된 반면, 주택·산업단지·물류·수자원·지역 및 도시 등 국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영향을 큰 생활인프라 성격의 투자는 오히려 감액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듯이 SOC 투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뛰어나고 민간소비 증가 등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OC 투자는 국민소득 향상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SOC 투자는 최근 '소비적 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와 같이 SOC 투자의 중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고,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개선방향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최근 들어 안전과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있음.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SOC 정책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임.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가나랜드(주) 조 창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138번길 116 (강동동) T : 051-941-3055 보유업종 : 조경시설물설치	 가림포장건설(주) 송 수 남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533호(우동, 빈프라자오피스텔) T : 051-703-5578 보유업종 : 포 장
 (주)은개빌 성 지 희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24, 4층 404호(좌동, (주)케이티좌동 사옥) T : 051-518-3111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건안건설 박 기 환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37, 205호(좌동, 세실빌딩) T : 051-703-6301,2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경신건설 신 수 홍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 4 3층(연산동) T : 051-853-8644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금강건설 강 동 남	부산 동래구 동래로 170, 1층 (철산동) T : 051-556-1195 보유업종 : 지방판금 · 건축물조립
 (주)금양건축 서 형 환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69 102동 301호 (양정동, 대성문컨트러블유) T : 051-867-778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나경 김 수 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59번길 23, 1층 2호(구서동) T : 051-513-2660 보유업종 : 석 공
 (주)노아인테리어 김 한 석	부산 남구 수영로 312,1006호 (대연동, 간세기센츄리시티빌딩) T : 051-610-141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누리건설산업 최 재 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10-1(2층) T : 051-782-6035 보유업종 : 석 공
 (주)대기건설 정 순 국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4-5 2층(주례동) T : 051-316-1113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대용개발(주) 정 영 미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404번길 37, 비동(상락동) T : 051-301-1100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대일산업개발 오 상 열	부산 동래구 명륜로 99, 3층 (명륜동) T : 010-8524-530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드온에스엔지 임 수 봉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109-4 T : 051-868-8657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철호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보산업개발 김 병 준	부산 연제구 과정로322번길 29 (명륜동) T : 051-853-8778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동부산축의장 인 병 영	부산 금정구 공단로50번길 1 (금사동) T : 070-4323-7203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동신이엔텍 김 상 민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1로40번길 51(송정동) T : 051-832-1473 보유업종 : 상 · 하수도설비	 동원건설(주) 여 미 향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934번길 24 5동402호 (모라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T : 051-331-3739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두리 정 일 석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28번길9, 상가동 305호(거제동, 대우아파트) T : 051-506-9123 보유업종 : 송강기설치	 (주)마인 정 일 섭	부산 금정구 금강로611번길 42 (남산동) T : 051-581-2884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머린(Merine) 고 민 우 (공동대표: 김철수)	부산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6 (초량동) T : 051-466-5750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수중	 (주)명보개발 조 진 완	부산 금정구 금당로 176 302호(남산동, 칸트리힐) T : 051-516-8397 보유업종 : 미장 · 방수 · 조적
 (주)명성이엔씨 김 청 민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93 101호 (주례동, 양지아카데미텔) T : 051-783-5305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미래하우징 강 현 동	부산 연제구 과정로251번길 25 104호(연산동) T : 070-8731-0404 보유업종 : 실내건축
 백향건설(주) 서 체 원	부산 연제구 과정로 74, 305호 (연산동, 선경아파트상가) T : 070-8834-8984 보유업종 : 토 공	 (주)보문이엔씨 서 미 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903호(우동, 마리나센터) T : 051-610-1457 보유업종 : 조경식재
 부평학공업(주) 이 병 태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2로13번길 4(송정동) T : 051-831-5111 보유업종 : 도 장	 (주)부림건축디자인 박 주 연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509-1 2층(안락동) T : 051-809-003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신 현택	부산 연제구 아시아대로65번가길 38(가재동) T : 051-710-5794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삼덕정공 박 숙열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54 (송정동) T : 051-831-9067 보유업종 : 강구조물
 (주)삼영디자인 김 갑영	부산 동래구 안락로 61 (안락동) T : 051-625-353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삼우에이피엔 백 경운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26번길 12 (대저동) T : 051-972-3550 보유업종 : 지붕만공 · 건축물조립
 (주)삼위건설 김 영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510호(가재동, 정림빌딩) T : 051-507-5261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서원건설 김 지홍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156 201호(대연동, 부일마이우스) T : 070-8991-8943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주)서원산업 서 경석	부산 강서구 신희신단1로 215 703호(신희동, 새미래오피스빌딩) T : 055-346-4544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성민건설(주) 김 정수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518번길 21 (삼락동) T : 051-313-3324 보유업종 : 토 공 비계 · 구조물해체 철근 · 콘크리트
 (주)세진씨엔씨 고 영권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508호 (우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2차) T : 051-913-0490 보유업종 : 토 공	 (주)수성방재 문 재식	부산 수영구 양미변영로52번길 41-17 (수영동) T : 051-642-6119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철호
 (주)스타스코디자인 전 광섭	부산 남구 신선로 428 창업보육센터 333호 (용당동, 동명대학교 산업협력관) T : 051-911-3600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송도디엔씨 임 우수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7 3층 (남천동) T : 051-925-7667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승보세이브(주) 엄 원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2, 305호 (중앙동6가, 동방빌딩) T : 051-442-6013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시대도시 최 세형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53번길 30-9, 2층 (재송동) T : 051-784-8335 보유업종 : 실내건축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시원엔씨 김 미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85 207호 (남산동, 우남기사빌라) T : 051-582-6211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신도산업 조 규욱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1201호 (우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2차) T : 051-522-4862 보유업종 : 도 장
 (주)에스디알공간건축 서 영준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252번길 14 (가야동) T : 070-4124-1449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에시오 이 등현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45 본관203호(범천동, 칠도청일반관리단) T : 070-7710-4949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에온디자인 김 정원	부산 사상구 장인로17번길 107 2층 (감전동) T : 051-328-243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예원건설(주) 문 상석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로 169 T : 051-727-9914 보유업종 : 토 공 조경식재
 (주)와이디자인 문 선미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316호 (부전동, 유원골드타워오피스텔) T : 051-817-8188 보유업종 : 미장 · 방수 · 조적	 (주)유엔엔지니어링 박 원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2097번길 6 (남산동) T : 051-790-991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무진시스템육실 백 은주	부산 금정구 금강로 694 207호 (남산동, 거성리전시) T : 051-513-9303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웅진이엔씨 이 한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5번길 12 3층 (주례동) T : 051-914-0974 보유업종 : 비계 · 구조물해체
 (주)월드인테리어 김 주홍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16 3층 (학장동, 월드빌딩) T : 051-805-0026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에이디자인 이 경재	부산 남구 수영로298번길 36 4층 (대연동, 유아빌딩) T : 051-625-1977 보유업종 : 실내건축
 재원건설(주) 안 정민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6 3층 (화명동) T : 051-365-8955 보유업종 : 철근 · 콘크리트	 제이에이스틸 강 재율	부산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39 상가 105호(달리동, 예엔동산타운) T : 051-831-7573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 · 철호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준건설(주) 구 준 회	부산 금정구 금성로 545 4층 (남산동, 해암빌딩) T : 051-583-9518 보유업종 : 토 공 철근·콘크리트	 칭미텍(주) 이 훈 택	부산 해운대구 APEC로 17 3207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T : 051-740-5068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칭화건설 송 광 섭	부산 동래구 총명대로218번길 55 2층 (수인동) T : 051-554-5600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칭운디앤씨 우 미 영	부산 중구 보수대로 82, 710호 (부평동4가, 골든시티오피스텔) T : 051-988-0092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태민 이 분 남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13번길 30 (초음동) T : 051-502-5217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한국후직(주) 전 홍 남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92번길 25(송정동) T : 051-831-4037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한미피앤씨(주) 김 명 덕	부산 중구 대청로 54-2 (부평동2가) T : 051-243-4023,24 보유업종 : 도 장	 (주)합동조경건설 정 현 숙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848번길 10 (전포동) T : 051-819-7130 보유업종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상 호(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업종
(주)강산건설 양 현 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9 비동 4층(연산동,해암빌딩)	051-868-9565	미장·방수·조적
구평건설(주) 김 광 수	부산 수영구 남천비다로9번길 41-4, 201호(광안동, 광안하이캐슬)	051-622-0086	철근·콘크리트
(주)디오서초 박 주 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118 3층(송정동)	051-722-6114	철근·콘크리트
(주)디자인공간의힘 박 귀 봉	부산 남구 진남로 194-1 2층(문현동)	051-751-5554	실내건축
(주)맥디자인 강 석 만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우동, 부산컨벤션센터)	051-740-7561	실내건축
(주)미주건설 김 종 백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22	051-508-9804	금속구조물·창호
범창종합건설(주) 임 경 희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마린타워상가 비동 401호	051-418-8040	포·장
(주)비에스토건 장 창 현	부산 사상구 사상로 182 6층 603호(래복동, 청호빌딩)	051-325-6636	토 공
새누리엔아이(주) 김 태 우	부산 동래구 총명사로 57 (명정동)	051-528-2352	실내건축
(주)성진건설 이 진 안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77 (좌동)	051-743-3011	비계·구조물해체
(주)성진이노테크 육 성 진	부산 남구 고동골로 56-2(문현동)	051-723-1961	도 장
수주건설(주) 이 광 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635호(우동, 선프리지)	051-731-2626	미장·방수·조적
(주)수풀림 박 노 부 예	부산 금정구 금강로633번길 53 2층(남산동)	051-515-8130	조경식재
(주)신세계조경개발 우 진 숙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848번길 10, 2층(전포동)	051-819-7130	조경식재
창현개발(주) 김 기 숙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17 제상가동채1층제101호(부전비치)	051-723-3378	토 공
청우조경(주) 여 균 선	부산 부산진구 초음천로55번길 34 (초음동)	051-802-4519	조경식재
(주)청하건설 박 재 위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646번나길 4(래복동)	051-522-2935	금속구조물·창호
(주)탄탄글로벌 김 효 경	부산 강서구 녹산신단381로12번길 39 (송정동)	051-863-0800	도 장
(주)태준 김 태 준	부산 동래구 총명대로457번길 72 5동 201호(안락동, 한우아파트)	051-931-9744	실내건축
(주)티움조경 조 승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1008호(부전동, 신동아오피스텔)	051-817-1825	조경식재
(주)하이피건설 조 용 만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597(3층)	051-722-7188	토 공 철근·콘크리트
(주)한국창호 송 통 섭	부산 동래구 시실로24번길 68 (명륜동)	051-501-4204	금속구조물·창호
(주)호서산업개발 김 인 수	부산 서구 구덕로 265 2층(서대신동17가)	051-246-3756	철근·콘크리트

※ 사진을 제출 못했거나, 사진 화질이 나빠서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사진을 추가로 보완해 주시면 다음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부산전출·입업체 현황

(2015. 1. 1 ~ 3.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계림이앤씨 (대표: 정자옥, 경남)	(주)가양산업 (대표: 백은숙, 경기도)
누리예코(주) (대표: 김윤미, 충남)	구평이앤씨(주) (대표: 조성연, 서울)
(주)대명 (대표: 임대성, 전남)	기성건설(주) (대표: 이용주, 강원도)
(주)대한그린에너지 (대표: 박근식, 전남)	(주)누리포장건설 (대표: 신준영, 경기도)
(주)동일개발 (대표: 엄철호, 여태현, 경남)	(주)대림 (대표: 최경숙, 전남)
비엔에스건설(주) (대표: 황성섭, 경기도)	(주)대성개발산업 (대표: 박대호, 경남)
에이앤건설(주) (대표: 박인한, 경남)	(주)대영이앤씨 (대표: 신진영, 경기도)
(주)우남조경 (대표: 김만근, 경기도)	두성중공업(주) (대표: 서정표, 대구)
(주)이강건설산업 (대표: 이상호, 강진국, 경남)	(주)베스트조경 (대표: 박기찬, 울산)
재원건설(주) (대표: 이병욱, 울산)	수원조경 (대표: 윤미영, 경남)
현우산업(주) (대표: 최영출, 울산)	수원건설(주) (대표: 최남식, 경남)
	어천건설(주) (대표: 정명만, 서울)
	재원건설(주) (대표: 이병욱, 경북)
	(주)주형 (대표: 이구홍, 충북)
	(주)중앙건축디자인 (대표: 박순희, 경북)
	진명종합건설(주) (대표: 조덕래, 경남)
	(주)천봉산업개발 (대표: 한허숙, 대전)
	(주)해강 (대표: 정숙자, 강원도)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5. 3.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3	52	남구	96	131	북구	66	89
동구	61	130	금정구	198	303	사상구	103	131
서구	25	29	연제구	130	194	강서구	119	164
사하구	63	82	해운대구	188	269	기장군	168	271
영도구	21	30	수영구	95	137			
동래구	176	228	부산진구	163	242	합계	1,695	2,482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01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 (법무사사무소)**

0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0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보증기능금액 확인서 및 기업진단, 기술자, 사무실)**

04 **소재지 관할 구·군 건설업 등록 신청서 제출**

05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06 **건설업 등록 수리 및 사실 공고**

07 **우리협회 회원 가입 및 시공능력 평가 등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제조합출자최수증명원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건설업체 재무관 이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인턴기관에서 진단)
- 건설기술자(기능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비 및 선박 보유 등록증 및 보유내역(철강재수 중,삭도설치,준설)

※ 협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 → 건설업 신규·양도·합병 등]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거푸집동바리 작업 준비중 형틀목공 떨어져 사망			
공사명	(주)○○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갤러리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0.26(토) 15:5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재해개요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남, 50세)이 지붕 슬래브에서 오후 간식 후 옥탑 슬래브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을 위해 옥탑층 계단 슬래브 단부에서 약 3.2m하부 지상 3층 계단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슬래브 단부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슬래브 끝 등(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를 착용할 때에는 반드시 턱끈을 매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실족하여 떨어진			
공사명	○○근생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1.23(토) 11:5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14층 빌딩

재해개요
타설공(보조공)인 피해자가 지상 8층 바닥물탈 타설진행중 엘리베이터 홀 부근에서 자재 정리작업(추정) 중 실족하여 약 26m아래 엘리베이터 피트(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조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난간대를 거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배관작업을 하고, 이후 몰탈타설 작업시에는 엘리베이터 안전망을 재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
-------------	---

건설용어 바로쓰기

올바른 우리말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설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식 표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현장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일본어식 건설용어들을 알아보고 바른 우리말 표현을 정리해봤다.

건설용어			
일본어	우리말	일본어	우리말
가쿠	틀, 액자	스미끼리	모따기
가다	틀, 본, 꼴	스미다시	막매김
고데	흙손, 인두	스페아	예비
구가다	구식, 낡은 모양	스페아깡	예비통
구라인다	그라인더, 연삭기, 연마기	시디오(우)계	하도급
구리스	윤활제, 그리이스(Grease)	루베	일방미터(m ²)
기리	송곳	메지	줄눈, 사출
기리버리	버팀기둥, 버팀대	메기	도금
가스	흙, 상처	몽키	몽키스패너
가지	천, 감, 옷감	문와꾸	문틀
나거리	유찰,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박깡	패킹
나리비	줄서기	발브	밸브
나외버리	줄쳐보기	밤바	밤피
넛도	넛트	빗데리	배터리, 축전지
네키	괘, 과입재	벤딩	구부리기
노바시	놀이기	보루방	드릴머신, 물공선반
넛빠	넛피	부라시	솔
다까시	높이	빠대	퍼티
다루끼	각목(2X2inch 각재)	야마	툼니
다마	구슬, 알	야스리	줄
다시방	앞서잡	와리	나누기, 구분
당고	담합	이지방	1번
데스라	출력	자바라	주름테, 주름줄
데스리	난간, 난간 두껍	젠다이	창선반
댕깡	철판	쿠세	버릇
도기다시	갈아내기	하코	상자
도다이	토대	하리	보
도리무	드림	히바끼	걸레받이
도란스	변압기	하이깡	배근
둠빠	두툼한 겨울직업복	얌마	쇠메
삿슈	새시	호로	달걀, 씌우개
세기이다	거푸집 널, 흙막이 널	후기	뿔칠
소오트	합선(전기)	후로링	플로어링
슬레프	슬레이트	히로시	눈금표시하기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3월 31일 중앙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계약 외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화 방안 등 10여개의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해소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사회 2015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행사명
2015.04.07.(화)	건설안전기원제
2015.04.14.(화)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분과회의
2015.04.16.(목)	건설업무관계자 합동 워크숍
2015.04.20.(월)	중구청장 초청 간담회
2015.04.24.(금)	2015년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2015.04.28.(화)	강서구청장 초청 간담회
2015.05.15.(금)	부산전문건설인 신행
2015.05월중	해외 선진건설현장 시찰
2015.05월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분과회의
2015.06월중	건설산업기분법령 및 하도급법령 강습회
2015.07월중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원개발(주)
김평덕 대표이사

계 질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전문건설인들의 바쁘고 열정적인 삶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 등 기록 사진도 많은데, 공사 현장을 누비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뀌는 법과 제도는 얼마나 많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을 한 번더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건설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나올 볼 호의 코스카레터에는 우리 건설업계에 불의의 혼풍이 불었다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흥산건설산업
강재원 과장



평 소에 외근 근무가 많은 편이라 유용한 협회 채널이나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못하고 있던 중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동료분께서 유용한 자료가 많다고 '코스카레터'를 추천을 해주셔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정리가 잘되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용어 바로쓰기"입니다. 저 역시 현장을 통해 일을 하다 보니 한국어 보다는 일본어, 저희가 말하는 현장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젠가 지긋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일본어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런 말들 보다 우리 말을 사용하고 싶어도 잘 생각이 안나거나 어색할 때가 많다 보니 여전히 현장에서는 꾸준히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퍼져나간다면 수년안에 많은 분들이 일본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겠죠? 본인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게 되겠죠? 기회만 된다면 자주 접하고 싶은 것들이 유용하더라도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건설기본법이나,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

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아쉽게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 또는 업체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협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친절하시고, 협회사들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건설인 건설회사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우성엔지니어링 최재홍 과장
- 재흥건설(주) 권세리 과장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200만원

Q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공공공사 설계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실적공사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반영한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는 이 금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2016. 12.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토록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실적공사비의 변경된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 2015. 5. 29(금)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 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